

Ⅷ. 온천행궁(溫泉行宮)과 신정(神井)

1. 온양온천의 유래

온양 온천이 언제부터 발견되었는지는 정확하지 않다. 다만, 삼한시대 이전부터 온천이 발견되어 이 고장의 명소로 이름이 알려졌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을 뿐이다.

문헌상에 온양 온천이 기록되어 전하는 것은 백제시대 이후부터이다. 이곳 온양 지방을 백제시대에 탕정군(湯井郡)이라 했으며 '탕정(湯井)'은 곧 "끓는 우물"이란 뜻이니 '온천'을 뜻하는 말이다. 신라가 백제를 병합한 이후에 문무왕(文武王)이 탕정군을 승격시켜 탕정주(湯井州)로 개편하고 총관(總管)을 두어 다스리게 하다가 그 후에 다시 탕정군으로 개편하였다.

신라가 망하고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한 후에는 온수군(溫水郡)이라 하였는데 이 '온수(溫水)'로 '따뜻한 물'이라는 뜻이니 곧 '온천'을 의미하는 말이다.

조선건국 초기인 태종 14년 (1414년)에 온수군과 신창현을 통합하여 온창군(溫昌郡)이라 했다가 2년 후에 다시 분할하여 온수현(溫水縣)이라 개칭하였고 세종 24년 (1442년)에 세종대왕께서 잠시 휴양하시기 위하여 이곳 온천에 행차하여 온양군(溫陽郡)이라 개칭하고 정 6품의 현감으로 보임하던 것을 정 4품의 군수로 보임하도록 승격시켰다.

관할 구역의 범위로 보나 인구의 수효로 보더라도 군수를 보임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았지만 온천수(溫泉水) 때문에 특별히 행정구역을 격상시켜 군수를 보임하는 특혜를 입게 되었다.